

# A Study on the Design Preference of Functional Clothes

Lee, Hyun-Jeong\* · Chung, Sham-Ho

Chung-Ang University · Chung-Ang University

Functional clothes, which originated from special clothes to be worn in special occasions, refer to all the clothes which have special functions to remove inconveniences caused when costumes are worn. Especially, the clothes for handicapped people who have bodily or mental defects should be produced to provide the wearers with cheerful feelings in consideration of their movements, seasonal needs, hygienic points, etc. Functional clothes for handicapped people should not just significant in terms of physical and mechanical aspects, but also be manufactured to meet the needs of each of the handicapped people in such a manner as to ①provide moderate functions to the structure of the body, ②use appropriate materials or matters to make the wearer feel good, ③be easy to put them on and off, and ④be convenient when the wearer makes movements or goes to the bathroom. They should be also produced in such a way as to remove inconveniences caused by a bodily handicap, complement the deficiencies in the appearance of the wearer or cover the bodily defects, provide the wearer with self-confidence and pride since when their design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normal clothes, and help the wear enthusiastically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the materials of functional clothes, many aspects such as ventilation, contraction, moisture absorption, getting wrinkles, and endurance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materials should have antibacterial, anti-smell, and allergy-resistant features.

This study investigated 150 crippled females living in Seoul between February and May 2005

to determine what kinds of designs they preferred, with a view to develop functional clothes design for them.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rained investigators who used the questionnaire method and person-to-person interviews as well.

The findings are listed below. First, they preferred most T-shirts in which they could move freely and such a design as has openings from the neck to the chest and arrange the dress with buttons and a zipper. Second, they wore trousers more frequently than a skirt and preferred such a functional design as has the waist part of the dress supported with an elastic string, the length reaching the ankle, the dress itself arranged with a zipper, and openings on two external sides (the opening reaching the calf of the leg). Third, they preferred good contractibleness of the upper garment most, followed by good absorption, washable-ness, and ventilation.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crippled females wearing functional clothes with more mobility and psychologic satisfaction and encourage them to lead a peaceful life in their society, so that more opportunities may be created for them to be employed and orientations and directions may be given for relevant industries to research and develop such clothes as are suitable to handicapped females, with a view to make the clothes for handicapped people ready-made and practical in an earlier time.

## 기능성 의복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연구

이현정\* · 정삼호

중앙대학교<sup>\*</sup> · 중앙대학교

우리나라 여성 장애인은 약 55만 9천명이고, 인구고령화에 의한 여성노인 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한 환경에서 입는 특수복에서 비롯된 기능성 의복은 장애인을 위한 의복을 포함하여 착장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수한 기능을 하는 모든 의복을 일컫는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가진 장애인들을 위한 의복은 착용자의 활동량, 계절적인 문제, 위생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활동 시 경쾌감을 주어야 한다.

기능성 의복은 보건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환경과 신체와의 관계를 적절히 만들어 줌으로서 착용자의 피로를 경감시키고, 표면에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에서 기능성은 단순히 물리적·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 각자의 필요에 따라 ①신체구조와 기능에 대해 무리가 없고, ②재료나 재질이 적당하게 사용되어 착용감이 좋고, ③입고 벗기 쉬우며, ④활동하거나 용변 시 편하다는 편의성과 활동성을 말한다. 또한 장애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외모를 보완해 주고 신체적 결함을 가릴 수 있으며 일반인의 의복과 디자인 면에서 구별되지 않는 옷으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의 개성을 살리면서 나아가 의욕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패션을 일컫는다. 또한 기능성 의복은 소재에 있어서도 통기성, 신축성, 흡습성, 구김이 가는 정도, 내구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항균방취, 소취, 항알러지성 등의 소재 특성도 요구된다. 이와 같은 소재 특성은 황토가공이나 음이온 가공, 크레비온 가공, 비장탄 가공, 토르말린 가공, 쉐다이어 가공 등을 한 신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훈련된 조사가원이 설문지법과 일대일 면접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활동성이 좋은 티셔츠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목부터 가슴까지 트임이 있는 디자인과 단추와 지퍼로 여미는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치마보다는 바지를 주로 착용하며 허리의 일부분만 고무줄로 된 허리, 발목까지 오는 길이, 지퍼로 여밈, 바지 바깥 양옆 트임(종아리까지 트임)이 있는 기능성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셋째, 상의의 소재에 대한 선호도는 신축성, 흡수성, 세탁성, 통기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의의 경우는 신축성, 영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들의 특수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편견 속에 소외되어 왔다. 장애인 스스로도 정상인과 같아보이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을 고려한 특수의복을 선택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 기성복과 같아 보이면서도 활동성과 편의성을 부여한 기능성 의복은 장애인에게 정신적·신체적인 긍지와 독립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 여성에게 기능성 의복을 통해 활동성과 심미적인 만족감을 주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지체장애인 여성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기업들의 장애인 의복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과 제품개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체장애인 의복의 기성복화 및 실용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